

	보도참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이형주 과장(2156-9870)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2156-9873)
배포일	'16.1.15(금)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2매

제 목 : 임종룡 금융위원장, 헨리 페르난데즈(Henry A. Fernandez) MSCI 회장과 우리나라의 선진지수 편입 관련 면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5일(금) 금융위원회 집무실에서 헨리 페르난데즈(Henry A. Fernandez) MSCI 회장과 만나 우리나라의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의 발전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많은 글로벌 투자자도 한국을 이미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 韓 GDP('15년) : 14,351억불(세계 11위), 시가총액 : 1조 2,006억불(세계 11위)

○ 한국 정부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취해왔던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하였음

* ①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간소화(3~4일 소요 → 4시간) ②외국인 투자자 집단체내 펀드간 이체(free delivery, 장외거래 예외) 허용('07.12) 등

○ 이와 함께 외국인 ID제도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외국인 통합 계좌(omnibus account) 도입방안을 1월 중 발표하는 한편, 원화의 환전성 개선 문제도 관계기관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헨리 페르난데즈(Henry A. Fernandez) MSCI 회장은,

○ 한국 경제·자본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개선 의지를 높게 평가하며,

○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화답하였음

한국 정부는 MSCI 측과 기 구성한 워킹그룹 등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